

전주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도시 여건 맞춰 27년만에 규제 완화 등 제도 전면 정비... 환경 개선 · 도시 경쟁력 강화 등 기대

전주시가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 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 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시는 공원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를 27년만에 전면 정비해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원 조망 훼손 방지와 도시 환경 조성 및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덕진공원과 산성공원 등 8개 주요 공원 경계 200~300m 이내의 총 752만9303㎡를 15개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전주시역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고도지구(655만11385㎡, 전체의 87.0%)가 해제되고,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완산공원과 기린공

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97만 7918㎡)는 존치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키로 한 것은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재개발 · 재건축 등 개발 여건이 제한되면서 27년이 경과된 현재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경관이 저하되고, 주거 환경 악화 및 장래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2022년 11월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

그 결과 시는 기초조사와 상위 계획 검토, 조망 분석을 거쳐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높이를 관리하는 중복규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중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시작으로 전라향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전주시의회 의결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0일 열린 '제8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고도지구 해제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개편을 통해 전체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고도지구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공원의 통행축 · 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 및 층수 계획을 수립토록 해 도시 노후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존치되는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 · 재건축지역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또한 완화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원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완화기준을 현실화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고도지구가 27년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6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 우수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사진 왼쪽 하 유나 주무관, 사진 오른쪽 김예랑 주무관)

민원 신속 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전주시, 최우수상 하유나 · 우수상 김예랑 주무관 선정

전주시는 16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 우수공무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우수상에는 하유나 덕진구 산업교통과 주무관이, 우수상에는 김예랑 완산구 산업교통과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정처리기간 대비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 민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고, 마일리지 획득 성적이 우수한 민원 담당자에게 매년 3회에 걸쳐 표창장 및 포상금을 지급해 자긍심과 업무 의

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민원 신속 처리 우수공무원은 고충 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 488종을 대상으로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때 부여되는 마일리지 높은 순으로 선정되며, 마일리지는 법정 처리 일수보다 단축 처리한 일수만큼 환산해 계산된다. 최종점수는 환산한 마일리지 점수 70%와 민원 처리 건수 점수 30%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최상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영락교회, 이웃 사랑 나눔 실천... '라면 100박스' 기부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소재 전주영락교회(담임목사 유사무엘)는 16일 평화2동 주민센터(동장 이은혜)를 방문하여 라면 100박스를 후원했다.

유사무엘 목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추운 겨울 우리 지역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평화2동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관내 저소득층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이웃사랑의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영락교회는 올해 추석에도 조순가정, 소년소녀 가정에 10세대에 성금 300만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400장을 기부하는 등 해마다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쳐 꾸준히 이웃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겨울철 민생안정 '최우선'

재난안전 관리 위해 시설 점검 ·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 민생안정 확보 총력

우범기 전주시장은 16일 전주시서기지원센터와 백제대로 골슬나무공원 도로 열선, 상하수도본부 서신통합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했다.

먼저 우 시장은 한파 응급대피소 지정되어 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전주시서기지원센터를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동절기 한파 기간 중 노숙인 보호 활동에 봉사하고 희생으로 근무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는 노숙인 분들이 다시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돌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시장은 백제대로 골슬나무공원 인근 도로열선을 점검하고, 현재 운용 중인 전주시역 열선 26개소(5624m)에 대해 강설 시 적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및 운영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또 강설예보 시에는 출퇴근 시간대 이전 제설작업 사전살포를 완료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서신동에 위치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16일 전주시서기지원센터와 백제대로 골슬나무공원 도로 열선, 상하수도본부 서신통합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했다.

상하수도본부 서신통합센터의 계량기 시험소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량기 동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혼란한 시기일

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민생인만큼 민생안정확보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성탄절 ·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성탄절 ·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탄절 ·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24일부터 1월 2일까지 이어지며, 각종화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차량 등 장비 32대와 소방공무원 210명, 의용소방대원 156명 등 총 366명이 비상출동 대기 상태에 돌입하여 △기동순찰 등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상황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활동 체계 확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당직관 상황조정 등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최근 국정 현안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다중운집장소 순찰 강화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중이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국가 주요상황과 맞물려 연말연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